

미륵신앙과 불법의 비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불교가 들어올 때 미륵신앙 또한 같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미륵신앙은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석가를 대신할 성인의 출현을 고대하면서 발생한 신앙으로 석가가 연설한 미륵삼부경을 토대로 한다.

미륵불은 인류를 구제할 미래불로서 중생들을 구원하여 불국토에 거하게 한다는 전설성왕이다. 우리나라는 미륵신앙이 다른 불교국가에 비해 상당히 뿌리 깊어 내려 있어서 미륵불상이 법당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발견된다. 미륵신앙은 어려움에 빠진 민중들이 현재 및 내세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구제해 줄 희망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미륵신앙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은 진표율사이다. 진표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로서 12세 때 금산사로 출가하여 승제법사를 스승으로 모신다. 스승 승제는 진표에게 지장보살과 미륵불을 만나서 계를 받으라고 명령하였고 진표는 이에 따라 명산에 소재한 수행지를 찾아 다

니다 변산의 부사의방에 들어가 3년에 걸친 망신잡법(亡身穢法)을 통해 지장보살과 미륵불을 친견하게 되고 그로부터 계를 받게 된다. 망신잡법이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참회하며 자신을 짓기겨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는 수행이다. 진표는 돌로 자신의 몸을 짓기며 참회하며 수행하다가 지장과 미륵을 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미륵이 실존한다고 보고 그분을 친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한 진표! 자신이 믿는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진실한 신앙인이자 진표의 치열한 구도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참 미륵을 만나 뵈고 수십 년 동안 지도편달을 받은 승리제단 신도를 앞에 진표율사가 던지는 구도의 메시지는 강렬하다 하겠다.

진표는 금산사와 범주사 및 금강산에 발원사를 창건하였고 미륵신앙을 널리 보급하는 데에 힘썼다. 진표 이후에 미륵신앙은 우리나라 도처에 퍼졌고 근대에 들어서서는 주로 신종교 계열에서 미륵불이



자신들의 종교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륵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강중산 선생을 믿고 따르는 증산계열의 종교에서는 증산이 미륵불이라고 추앙하고 있다.

1900년 경 석추담(속명 오영규) 스님이 승리제단에 입문하였고, 석추담 스님은 조희성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 조희성님의 설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부처님)이 되는 방법을 설한다 - 불경을 읽어보니 석가모니가 조희성님을 미륵불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신이 찾은 놀라운 내용을 1991년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름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을 대승 계열의 모종단에서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이긴자가 되려면 공격해 오는 마귀를 모질게 밟아서 짓이겨야 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속의 마귀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을 이겨야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를 이긴 이긴자가 되는 것이다. 이긴자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자신을 못이겨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승리자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이다. 강자가 되려면 끝까지 참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내력은 연단 속에서 생긴다. 이긴자가 되어야 영생활 수가 있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무병장수 하고~

좋은 운동 습관을 통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근육과 뼈를 키워서 몸과 마음을 활기차고 튼튼하게 강화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면 신체 기능을 보다 더 좋은 몸으로 개선하고 유지할 수도 있다.

‘모든 동작은 20~30초 유지’ 본인의 능력 따라 조절 가능.

- 동작 ① : 허벅지 뒷부분, 좌우 교대로 3세트
- 동작 ② : 허벅지 바깥 부분, 좌우 교대로 3세트
- 동작 ③ : 허벅지 안쪽 부분, 좌우 교대로 3세트
- 동작 ④ : 전신부분, 5회.*



※ 《온전한 자유율법(야고보서 1장 25절)》에 대해서 성경 상의 주인공이 자세히 밝힌 것을 본지 3면 하단 각주에 실음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43회

弓乙論(三) 궁을론
擲柶消息禮東致基 척사소목단동치기
五卯一乞禮東/沃出 오묘일걸단동불출
未判之圖午未樂堂堂 말판지도오미러당당
仙李一枝誰保命 선이일지수보명
柿林扶李守從之生 시림부이수종자생
不願聖人無福可數 불고성인무복가탄
李鄭黑猴申望縹緲頭尾 이정후흑신망록사두미
鄭初飛鳥鳴月五七四年 정초비조구월오칠사년
天受禪冕鸞龍太祖登位飛上
천수선오계룡태조등위비상
玉燈秋夜戌己之日 옥등추야구기지일
海印金尺天呼萬歲 해인금척천호만세

웃놀이는 별자리 28수(宿)와 중심에 천추(天樞)를 그려 낙동이 먼저 나와 이기는 놀이이다. 여기에 천지비밀이 들어 있다. 단군의 후손이 동방에 이르러 터를 잡는다. 모 다섯 번에 걸 한 번이면 낙동이 단번에 나느니라. 웃판은 마지막 때 죄악을 심판하여 생사를 판가름하는 비밀이 감추어진 그림으로 오미(午未)에 이르러 심승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넘쳐나리나. 오묘(五卯)는 을묘(乙卯) 정묘(丁卯) 기묘(己卯) 신묘(辛卯) 계묘(癸卯)를 말하며 여기에 걸 한 번을 하면 훗날 낙동이 한꺼번에 나게 된다. 걸은 양(羊)을 의미하고 세 발을 간다. 양은 신미생으로 오신 정도령 미륵불(보불 불)을 뜻한다.

따라서 오묘(五卯)이후 마지막의 걸 한 번으로 세 발을 가면 생사의 판단이 갈리는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계묘년으로 모가 다섯 번 나왔다. 굳이 이야기로 하자면 과거에 못 인간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던 사람들이 죽어 천당 극락 선경을 부르짖으며 각자 가진 재주와 솜씨를 뽐내며 웃판을 놀았다. 한 동안 사람, 두 동안 사람, 석 동안 사람이 있었으나 마지막에 오신 81궁 정도령은 살아 천당(극락, 선경)의 진리를 말씀하시며 웃을 던지자마자 모 다섯에 걸 한 번으로 해서 낙동이 단번에 나

오묘일걸(五卯一乞)로 미륵불이 출세한다는 천지비밀을 웃놀이에 숨겨두었느니라

게 되어 마지막 때에 죄악을 심판하며 생사를 판가름하는데 예전의 존경과 숭앙을 받던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다시는 죽어 천당 극락 선경을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목운(木運=5도 72궁 정도령 감람나무)의 아들 격이 되는 금운(金運) 81궁 정도령은 신선(神仙)이요 하나님의 가지로 오게 되느니라. 누가 나의 목숨을 보전 보호해주는가?

감(람)나무를 떠받드는 목운(木運=감람나무)의 영적아들 금운(金運) 81궁 정도령 미륵불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지만 성인(聖人)=81궁 정도령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없으니 마지막 때에 가서 통탄하리라. 이씨(李氏) 다음에는 정도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씨조선은 임신년(壬申年=黑猴申)에 시작하여 을사년(乙巳年=綠蛇)에 끝나느니라. 이씨조선은 574년(간(1392년~1965년) 이어지다가 끝나느니라. 이태조부터 순종까지는 27대 군왕이다. 흔히 이씨조선은 500년에 28대 군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마지막 임금인 이승만(李承晩)으로 해서 28대가 되어 이씨조선의 운이 끝나는 것이다. 이승만(李承晩)은 을사년(乙巳年=1965년)에 하와이에서 생(生)을 마감하였었다. 이승만의 이름 그대로 이씨 조선의 기운을 마지막에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령 시대는 9월(을사 병술)에 시작되나. 비조구월(飛鳥鳩月)은 구(鳩)자에서 조(鳥)가 날아가면 구(九)지만 남으니 올력 9월이 된다. 옥등추야는 9월이며 무기지일(戊己之日)은 15진주이다. 음력 9월 성령의 빛을 밝히며 감로해인을 들고 오시는 15진주 정도령(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만세를 부르리라. 금척(金尺)은 왕위(王位), 왕권(王權)의 신표(信標)로서 금 빛나는 자를 말하는데 금척을 갖다 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난다고 전해져 왔다. 해인이 금척이고 금척이 해인이다.

三分鼎峙龍兔之論 삼분정처룡토지론
李鄭爭鬪各守一鎮 이정쟁투각수일진
無邪蒼生萬無一生 무죄생만무일생
長弓射矢萬人求活 장궁사사만인구활
山鳥騎豚渡野奔邊 산조기돈도야계변
鼠女隱日三床後臥 서녀은일상삼후와
走宵神將葛羌勇士 주초신장갈강용사
白眉將軍濁川之魚 백미장군갈천치어
八鄭之中三傑一人 팔정중삼갈천치어
靑眉大將興陵非衣 청미대장이능비의
人王四維千人得人 인왕사유천인득생
分國爭雄三傑之人 분국쟁웅삼갈천치어
南步老將白首君王 남보노장백수군왕
七李相爭勝利一人 칠이상쟁승리일인
三分天下假鄭三年 삼분천하가정삼년
道下止人天破修身 도하지인천파수신
口出刃劍奮打滅魔 구출인검분타멸마
跪坐誦眞萬無一傷 권좌승진만무일상
鬼不矢口六千歲龍 귀불시구육천세룡
權柄之世坐居龍床 권병지세좌거용상
妖鬼猖獗火滅其中 요귀창렬화멸기중

가마술의 3발처럼 세 분이 나오느니라. 용(龍)과 묘(卯)로써 논(論)하느니라. 이씨와 정씨가 각기 하나의 진영을 지키며 투쟁하느니라. 이씨가 가고 정씨가 오는 과도기에 죄 없는 창생들이 만에 하나라도 살기 어려우리라. 장(張)씨는 활을 쏘면서 만인을 살리고자 하고 최(崔=산조산鳥) 사람은 돼지를 타고 시냇가를 건너는데 갑자생 여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장(張)씨는 궁궁이요 산조(山鳥)는 을을 일녀이다. 주초(走肖)는 조(趙)이며 조(曹)를 감추기 위한 글자이다. 신장(神將)

즉 신이 낸 장수로서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智略)을 가지고 있으며 용감한 선비요 눈썹이 흰 장군이지만 말러버린 개천의 물고기가 생명을 간절하게 원하듯 궁궁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갈구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도를 닦느니라. 구원의 정도령은 세 분의 걸출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구세주로서 동방으로 오신 분이니라. 빛나는 신선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인왕(人王)이시니 수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분은 마음의 영적나라에서 자신 속의 마귀와 투쟁하던 세 사람의 걸출한 사람 중 한 분으로서 남조선으로 오신 노장(老將)인데 금운으로 오셔서 영적 궁궁의 우두머리가 되셨느니라. 일곱 명의 사람이 각기 자기와 투쟁하는 가운데서 최후로 승리한 사람이니라.

천하가 삼분되어 가짜 정도령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삼년간 용맹정진 도를 닦으니 몸이 부서지도록 도를 닦으셔서 도를 완성하느니라. 입에서는 날카로운 진리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때려 부수어버리니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말마경(滅魔經)을 외을 때 만에 하나라도 상하지 않느니라. 세상 사람이 마귀인 줄도 모른 채 육천년 동안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용상에 앉아 왔던 마귀대장이 요사한 마귀들을 창칼같이 하였고나 정도령의 화인(火印=감로해인)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느니라.*

박영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의 존재 전도 문답 [16]

질문: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의 존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풀어 설명해주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리제단에서는 설명이 가능한지요?

답변: 먼저 야고보서 1장 내용 전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망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욕심을 부리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인간이 어둠의 영이 되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죄인으로서 인지능력의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사망관세를 이긴 이긴 자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 중의 죄요, 원죄가 되니까 바로 선악과라는 엄청난 사실을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자유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줄 수 있는 진짜 성경 상의 주인공만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인봉된 (빛들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의 존재)에 대해서 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빛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되는 이슬성신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들이 되는 구세주의 분

신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속에도 들어가서 생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아주 단순하고 축약된 형태로 인봉된 말씀이기에 그 말씀속에 감추어진 진의를 바로 알고자 하면, 빛들의 하나님 즉 이슬성신의 본신으로 역사하는 이긴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됩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에 등불이 어두워지고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곧 온전한 은혜요 선물이며 (약 1:17) 그 빛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살게 됩니다. 구세주 얼굴에서 나가는 빛이 회전하는 곡선광선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기 없는 세계이므로 밤낮이 없어지고 항상 낮입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들이 그들이 없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잠을 안 자고 피곤함이 없는 항상 이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는, 쾌락 속에서 사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업이나 어떤 일에 실패하여 낙망할 때 다시 힘내라고 북돋아 주는 말로 쓰여 왔는데, 사실이 말씀속에 하늘의 기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땅 끝 땅 모퉁이 한반도에서 출현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빛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되는 이슬성신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들이 되는 구세주의 분

본부제단 032-343-9981~2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